

샤프츠베리와 허치슨의 도덕감 이론에서 이성의 위치*

-덕 윤리학의 근대적 계승-

김 종 원**

주제분류 윤리학, 영국근대철학

주요어 샤프츠베리, 허치슨, 도덕감, 이성, 덕

요약문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 규범 윤리학이 주된 철학적 사조였던 근대에 샤프츠베리와 허치슨은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도덕감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품성과 그것에 근거한 덕스러운 행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샤프츠베리와 허치슨 모두 자신만의 도덕감 개념을 통해 이성 없이 덕을 파악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샤프츠베리는 도덕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정서와 동일시하면서도 덕스러운 행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도덕감 안에 이성에 의한 반성작용을 포함시킨다. 반면 허치슨은 우리 안에 덕스러운 품성과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독립된 감각기관인 도덕감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샤프츠베리에게 있었던 도덕감과 이성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낸다. 하지만 허치슨 역시 도덕감이 할 수 없는 역할-덕에 대한 판단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대 초월적인 보편적인 덕의 발견하는 것-을 이성의 도움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도덕감 이론을 통해 이성이 아닌 감성 중심의 새로운 덕 중심의 윤리학을 정립하려고 했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오직 절반의 성공만을 거둘 수 있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8S1A5B5A07072868)

** 서강대 강사

1. 들어가며

윤리학 연구의 최근 경향은 도덕적 행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존의 행위 규범 윤리학에서 벗어나 실제 실천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윤리학을 찾으려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규범 윤리학으로부터 벗어나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덕 윤리학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다. ‘어떤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가?’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춘 행위 중심의 규범 윤리학이 현대의 윤리적 실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실망하여, 그 대안으로 도덕적 행위란 옳은 행위의 기준을 아는데서가 아니라 덕스러운 성품에서 나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덕 윤리학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많은 윤리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덕 윤리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로 꽤 오랫동안 윤리학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왔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덕 윤리학이 쇠퇴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이성을 강조하던 계몽주의시대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계몽주의시대 이후 근대는 도덕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겪었다. 첫째로, 근대는 성품, 덕을 윤리학의 중심으로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과 ‘규칙’이 윤리학의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당시에도 덕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는 했지만 덕은 법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근대 도덕법의 창시자인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덕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윤리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¹⁾ 명확한 규칙 중심의 윤

1) 그로티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을 수동적 정념(passion)과 능동적 행위(action)

리학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한다. 그로티우스의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당시 존재했던 “도덕에서 실천적인 지혜를 가진 개인이 내리는 도덕적 판단보다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덕 규칙의 정확성에 대한 강조”²⁾의 선호와, “규칙에 따라 명확한 인도를 제공하는 도덕성에 대한 갈급함”³⁾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고정된 도덕 규칙을 제공하지도 않고 무엇이 덕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이 덕스러운 성품을 형성해서 덕스럽게 행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덕 윤리학은 근대 자연법 사상의 성장과 함께 점차 쇠퇴해져 갔고, 덕은 점차적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법에 복종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성향을 지칭하는 단어로 바뀌었으며,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법칙을 잘 배우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물론 근대의 자연법 사상가들이 도덕에 있어서 규칙이 아닌 행위자의 덕스러운 성격과 동기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도덕 규칙에 의해서 강요되는 완전한 권리(의무)와 그렇지 않은 불완전한 권리(의무)를 구별하고 덕 윤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일부 덕을 불완전한 권리(의무)로 받아들였다.⁴⁾ 이러한 불완전한 권

이라는 극단 사이의 중용으로 이해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따르면 1) 극단 자체가 덕인 경우도 있고, 2) 종류가 달라서 두 극단 사이의 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고, 3) 정의와 같은 몇몇 덕들은 이 둘 사이의 중용을 통해서는 발견될 수 없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Grotius(2012), 13-14.

2) Heydt(2018), 43.

3) Schneewind(2009), 183.

4) 슈니윈드에 따르면, ‘완전한 권리’와 ‘불완전한 권리’는 그로티우스 의해서 처음 구분되었다. 소유권이나 계약에 의해서 생겨난 권리처럼 권리의 소유자가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한 권리로, 구호품을 받을 거지의 권리처럼 정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지만 강요되지 않는 권리를 불완전한 권리로 간주한다. 이러한 완전·불완전 권리는 푸펜도르프(Samuel Pufendorf) 통해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로 발전된다. 푸펜도르프는 사회존립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는 의무를 완전한 의무로, 사회존립과는 무관하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무·‘자선’과 같은 불완전한 의무로 간주하고 사회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두

리(의무)의 수용은 자연법사상 안에서도 여전히 덕 윤리학에서 강조되어 온 행복과 최고선이 기초가 되는 도덕적 삶의 특징이 무시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근대에 나타난 도덕과 관련한 두 번째 변화는 근대라는 시기가 모든 중요한 결정이 인간의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과거의 우주적 체계로부터 모든 인간의 결정에 인간이 책임을 지는 체계로 점차 바뀌어 간 시점이 있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⁵⁾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실행된다고 간주했던 과거와는 달리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강조하기 시작한 근대는 비록 신이 제정한 법에 의해서 세상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인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덕성 기초에 관한 근대의 논의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중세 이후 근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도덕철학의 이론들은 신에 의해서 제공된 도덕의 객관적 실재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대로 들어오면서 도덕성의 기초를 신의 외재적인 권위에 의존해서 설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이 주체가 되어 내재적인 관점에서 도덕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시도들이 생겨났고, 따라서 도덕성의 기초는 점차 신으로부터 인간의 이성으로 옮겨져 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근대 초기에 있었던 도덕 실재와 신의 관계에 대한 주의주의(voluntarism)⁶⁾와 이성주의(rationalism)⁷⁾의 대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 이론은 도덕의 기초

의무가 상보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Schneewind(2009), 184-185.

5) Venturi(1971), 2-3.

6) 주의주의자들은 이성에 의해서 자연법을 통해 발견되는 도덕의 기초는 신의 의지의 표현으로 신의 의지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부과됨으로써 옳고 그름이라는 속성과 도덕법칙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칼빈과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홉스와 로크 그리고 푸엔도르프와 같은 자연법 사상가들도 이러한 점에서 주의주의자들로 간주될 수 있다. Schneewind(2009), 203.

7) 이성주의자들은 도덕의 기초를 신의 의지가 아닌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발견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법칙으로 간주한다. 랄프 커드워스(Ralph Cudworth)로

에 관한 상당한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이론과 달리 도덕 원칙이 계시가 아닌 이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근대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법사상을 바탕으로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하던 근대에 있어서도 인간의 고유한 성품을 통해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실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존재했는데 이 이론이 바로 18세기 초 영국에서 등장한 샤프츠베리(1671-1713)를 시작으로 프란시스 허치슨(1694-1746) 그리고 데이비드 흄(1711-1776)으로 이어지는 도덕감정론(moral sentimentalism)이라고도 불리는 도덕감 이론(moral sense theory)이다. 영국의 도덕감 이론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근대적 특징들을 소유한 이론들과는 조금 다른 이론적 입장을 견지한다. 이들은 다른 근대 철학자들과는 달리 덕을 의무나 법에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덕 중심 윤리학을 계승하고자 했다. 이들에 따르면 도덕 규칙과 법이 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덕스러운 것, 행복 그리고 최고선은 도덕 규칙에 선행하는 것이자 도덕 규칙의 요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도덕감 이론가들에게 덕은 올바른 규칙에 따라 행위하게 만드는 성향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적합하게 반응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자의 성품이 가진 성질이였다. 이들은 규칙이나 법과 무관하게 이러한 성질들을 파악하고 도덕적 성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도덕감 이론에서 찾고자 했다.

더욱이 도덕감 이론가들은 근대의 대부분의 도덕이론들이 동의하는 바와는 달리 이성을 통해서 도덕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

대표되는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자가 대표적인 이성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도덕법칙은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며, 과학처럼 자명해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하고 빠짐없이 모든 행위에 도덕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이 완전하다는 말은 이러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원칙의 영역 안에 거주한다고 말할 수 있다. Schneewind(2009), 206-207.

는다. 오히려 이들은 이성이 아닌 욕구와 감정과 같은 정서적인(affective) 상태야말로 인간의 품성 안에 담긴 덕스러움을 파악하기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발견된 도덕적 판단들은 그 자체 안에 도덕적 행위를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추동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들은 도덕성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도덕의 기초란 도덕 행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추동력을 가진 어떤 것이어야만 하고, 따라서 덕스러움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행위로 인도하는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감성적인 요소만이 도덕성의 기초 혹은 도덕적 실재의 기초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도덕감 이론가들의⁸⁾ 주장이다.

도덕감 이론가들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옳은가?’라는 도덕적 판단으로부터가 아니라 ‘특정한 도덕적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는 마음의 정서적인 상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윤리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들은 이성이 아닌 도덕감이라는 특수한 내적 감각기관을 상정하고 그것을 통해 특정한 도덕적 상황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승인의 판단과 동의의 감정을 도덕 철학의 기초로 삼는다. 하지만 도덕감 이론가들이 도덕감을 도덕성의 기초로 삼는다고 해서 도덕과 연관해서 이성을 완전히 배제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이들도 근대라는 시대의 인물들이었기에 이성을 강조하던 시대의 사상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8) 원래 샤프츠베리가 사용한 ‘도덕감(moral sense)’이라는 개념은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자인 토마스 버넷의 1697년 『「인간 지성론」에 대한 소견(Remarks upon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에서 처음 등장한다. 버넷에 따르면, 로크는 본유적인 관념과 원칙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도덕에 도달하게 위해서 지루하고 불명확한 연역을 필요로 하는 반면,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우리의 실제 반응은 즉각적이거나 심지어 반사적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에 만족할 만한 어떤 것이 필요한데,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바로 자연적 양심(natural conscience), 즉 도덕감이다. Tuveson(1948), 241-259.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은 도덕감 이론에서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자연법에 근거를 둔 행위 중심적 윤리학이 태동하던 근대에 이러한 움직임에 따르지 않고 덕 중심의 윤리학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18세기 초 초기 도덕감 이론가들 중 한국철학계에 다소 생소한 샤프츠베리와 프란시스 허치슨의 도덕감 이론을 설명하고, 그들의 도덕 이론에서 이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시대의 주류적 사고의 영향 아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이론을 전개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샤프츠베리의 도덕 철학

1) 조화로운 우주 그리고 도덕적인 미

샤프츠베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그 개체를 포함하는 종(species)의 한 부분으로, 각각의 종은 하나의 우주적인 체계의 부분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다는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의 형이상학적 전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도덕 이론을 정립해 나간다(C 168-169).⁹⁾ 그는 이 체계 안에서 부분과 전체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더 이상의 질서를 가질 수 없는 최상의 질서를 완전한 선(perfectly good)으로 간주하고(C 165), 각각의 부분들은 부분과 전체 사이의 이러한 질서와 균형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C 169). 따라서 진정한 선과 악이란 전체 체계로만 설명될 수 있다. 개체 혹은 부분 안에서 발생하는 악(private ill)은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닐 수

9) 샤프츠베리의 논문모음집인 『인간, 예절, 의견, 시대의 특징들(Characteristics of Man, Manners, Opinions, Times)』은 C로 표기해서 본문에 직접 인용한다. 악어 표기와 출처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참조하라. 샤프츠베리는 헨리 모어(Henry More), 랄프 커드워스(Ralph Cudworth), 벤자민 위치콧(Benjamin Whichcote)과 같은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Rivers(2000), 88.

있으며 우주적인 체계 전체로 보자면 선일 수 있는 것이다(C 169). 예컨대,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재앙이 초래되거나, 질병으로 인해 아프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이 아닐 수 있다. 전체와 부분의 관점에서 조화를 깨거나 무질서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샤프츠베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악이다.

감각을 가진 동물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시켜보자. 샤프츠베리에게 하나의 전체 체계로서 우주는 그 본성상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감각적 동물들도 이 질서와 조화에 공헌하도록 질서와 조화에 대한 선호의 감정(정서)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정서를 따라 행위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고 이 정서에 반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물론 감각적인 동물들은 자기생존을 위한 정서, 즉 자신에게 사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에 선호의 감정을 갖는 정서도 가지고 태어난다. 이 경우 개체에게만 유익이 되는 사적인 선(개체 생존)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공적인 선과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다. 두 가지 선 모두 자신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선과 공적인 선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종에 공적으로 유익이 되는 정서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정서 역시 전체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모두 선한 것으로 간주된다(C 170). 오직 자신의 사적인 이익만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 그래서 자신이 속한 체계에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 경우에만 그 동물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⁰⁾

그렇다면 선과 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샤프츠베리는 선을 단순한 선(mere goodness)과 덕(virtue)으로 나누고 단순한 선을 감각적 동물의 정서 혹은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으로, 덕(virtue)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선으로 구분한다. 즉, 덕(공덕)이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10)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그 동물이 가진 정서란 자연적인 정서(natural affection)라기 보다는 비자연적인(unnatural) 정서이거나 자연적인 정서의 과도한 경우라 할 수 있다(C 170).

으로, 외부 감각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연적 정서만을 갖는 감각적 동물들과 달리 외감과 내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간이 외부대상을 대상으로 삼아 생겨난 자연적 정서를 다시 반성의 대상으로 삼아 생겨난 이차적인 정서와 연결되어있다(C 172). 즉, 일차적 정서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얻어진 ‘좋아함(liking)과 싫어함(dislike)’이라는 이차적인 정서는 전체와 부분의 조화와 질서라는 공적인 이익(public interest) 혹은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인간에게만 그것과 연관해서 나타나는 정서라 할 수 있다.¹¹⁾ 이 이차적 정서를 산출하는 내적 감각이 바로 “옳고 그름의 자연적 감각(natural sense of right and wrong)”이라고 불리는 “도덕감(moral sense)”이다(C 177; 180).¹²⁾ 도덕감이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인류 전체의 번영과 존립을 촉진시키는 정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산출할 것이고 공적인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선호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산출하게 된다. 도덕감이 적절하게 작동해서 균형 잡힌 정서를¹³⁾ 소유하고 그 정서에 의해서 행위하도록 동기부여 된 사람이야말로 덕스러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¹⁴⁾

샤프츠베리는 선과 미의 관계를 통해 선이 가진 특징들을 설명한다.

-
- 11) “공적인 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칭찬할 만하고 비난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존재만을 우리는 덕스럽다(virtuous)고 부를 수 있다(C 173).”
- 12) 샤프츠베리에게서 ‘도덕감(moral sense)’이라는 단어는 논문모음집인 『인간, 예절, 의견, 시대의 특징들』안에 실려 있는 『덕 혹은 공덕에 관한 탐구』에서 딱 한번 등장한다. 이마저도 존 톨란드(John Toland)가 승인없이 출판한 초판(1699)에서는 도덕감이 아니라 “sense of right and wrong”로 사용되었다. 이 도덕감이라는 용어는 허치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Rivers(2000), 124.
- 13) 균형 잡히지 않은 정서는 교육이나 습관, 법, 종교에 의해 잘못된 옳고 그름의 지식이 생겨나서 반대의 정서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지탱하는 공적인 정서를 타락시켰을 때 생겨난다(C 175).
- 14) 샤프츠베리는 도덕감을 통해 덕스러움과 쾌락 그리고 행복을 연결시킨다. 도덕감을 통해 형성된 자연적 정서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쾌락을 산출하고 이 정신적인 쾌락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C 200-201; 229; 230).

그는 논문모음집인 『인간, 예절, 의견, 시대의 특징들』 속 대화 형식의 책 『도덕가들(The moralists, a philosophical rhapsody, being a recital of certain conversations on natural and moral subjects)』에서 자신의 대변자인 테오클레스(Theocles)를 통해 도덕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 종교와 덕,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사회성(sociability), 계시와 기적의 문제들과 같은 여러 철학적 주제들과 자신의 형이상학적 전제인 신적인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를 설명하면서 선과 미의 관계에 대해 진술한다(C 303). 즉, 이 우주는 선한 질서를 따라 만들어졌으며 하나의 체계로서 우주가 질서, 균형,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야말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이라 말할 수 있다(C 320). 따라서 샤프츠베리에게 미란 일종의 질서, 균형, 조화를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독립적인 자연적 대상들 속에 실재하는 것이다(C 331; 466). 조화, 질서, 균형이라는 속성이 자연적 대상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면 미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질료보다는 그 형상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의 물질적 성질 하나만을 가지고는 대상이 조화롭고 균형이 맞다고 말할 수 없기에 조화와 균형이란 질료라기보다는 형상적 배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C 322).

샤프츠베리는 이 형상이라는 미의 대상을 3가지 위계질서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사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죽은 형상들(the dead forms)”, 그 다음은 “형성을 가진 형상들(the forms which form)”, 즉 인간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최상의 미는 “죽은 형상들뿐만 아니라 형성력을 가진 형상들을 형성하는(forms not only such as we call mere forms but even the forms which form)” 존재, 즉 신이다(C 323). 이러한 위계질서는 아름답게 된 것(the beautified)이 아름다운 것은 오직 아름답게 하는 것(the beautifying)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C 322). 따라서 예술품이나 자연물보다는 신에 의해서 형성되기는 했지만 형성력을 가진 형상인 인간의 마음이 더 아름답고 인간의 마

음보다는 신적인 마음이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미추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인가? 샤프츠베리는 미적 실재를 파악하게 만드는 근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능(*instinct*)으로서 일종의 선천적 원리들을 제시한다.¹⁵⁾ 즉, 우리에게서 자연에 의해서 주어진 선개념(*pre-conception*)이 있어서 대상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자마자 그 대상이 아름다움의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샤프츠베리의 주장이다(C 326).¹⁶⁾

이처럼 샤프츠베리는 하나의 체계로서 우주가 질서, 균형,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은 선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여김으로써 미와 선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C 320; 327). 그러므로 선이란 “도덕적 미(*moral beauty*)”로서 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공유한다(C 126).¹⁷⁾ 그렇다면 선과 미가 공유하는 특징들이란 무엇인가? 우선 미란 우리 마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므로, 선

15)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자에게 강하게 영향을 받은 샤프츠베리는 본유성(*innateness*)을 거부했던 자신의 스승 로크에 반대하지만 본유성이라는 단어 대신 본능(*instincts*)라는 말로 바꾸어 본유적인 성질이 있음을 설명한다. “당신이 본유적(*innate*)이라는 단어가 싫다면 그것을 ‘본능(*instinct*)’이라는 단어로 바꾸도록 합시다(C 325).”

16) 샤프츠베리는 스토아 학파의 *prolepsis*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여 선개념(*pre-concep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샤프츠베리는 공동감각, 선개념, 도덕적 양심, 옳고 그름의 감각, 심지어 상상력과 감각까지도 도덕감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Rivers(2000), 124-126. 물론, 오직 정서에 해당하는 미감만이 모든 대상이 가진 미의 성질을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형태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은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조화로운지, 균형 잡혔는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C 408). 따라서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미적 대상들의 경우 미감은 이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정보를 수렴한 후 미에 대한 판단은 미감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내려진다. Rivers(2000), 129-130; 134.

17) 미와 선이 동일하다는 주장과 ‘도덕적 미’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사상의 *kalokagathia* 혹은 *kalon*에서 빌려온 개념으로 ‘고결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선미’로 번역되기도 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데모스 윤리학』 8권 3장과 『니코마코스 윤리학』 4권 3장을 참조하라.

역시 우리 마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실재적인 어떤 것이다. 또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화롭고 질서 잡힌 대상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대상의 미를 느낀다. 이 미적 판단의 즉각성은 우리의 사적인 이익과 무관하게 우리로 하여금 미적 대상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든다(C 319). 그렇다면 특정한 행위가 선한지를 판단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산출하는 것도 우리의 사적인 이익과 무관하게 도덕감에 의해 즉각적으로 내려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¹⁸⁾ 이와 같이 샤프츠베리는 미와 선을 동일시함으로써 선은 실재적이며 선에 대한 판단과 우리의 사적인 이익은 무관한 것임을 드러낸다.

2) 도덕감의 특징

이제 샤프츠베리에게 선의 정서를 산출시키는 도덕감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덕감 혹은 옳고 그름의 감각은 외부대상을 대상으로 삼아 생겨난 일차적 정서를 다시 대상으로 삼아 좋아함과 싫어함의 이차적인 정서를 산출하는 내적인 감각기관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외부감각기관과 달리 내감을 담당하는 능력기관은 감각작용의 결과물과 구별된 독립된 능력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샤프츠베리는 이 옳고 그름의 감각을 이차적인 자연적 정서와 동일한 것으로 상정한다.

이 옳고 그름의 감각이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악한 창조물은 가지지 못하는 이 같은 종류의 감각이 실제로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부정의와 그룹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와 평등과 옳음을 향한 사랑 혹은 정서를 내재하고 있어야만 한

18) 샤프츠베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사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우주적 조화와 질서를 파악하는 학문적 발견으로부터 쾌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인 미를 느낄 수 있다고 보는 선개념(pre-conception)의 또 다른 예로 사용한다(C 202-203).

다... (C 178)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창조물 안에는, 자기 자신을 감각에 나타나게 하는 외부대상들만이 정서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행위(감각작용) 그 자체와 반성에 의해서 마음 안에 나타난 연민, 친절, 감사와 그 반대의 정서들도 정서의 대상들이 된다. 그래서 이 반성된 감각(reflected sense)을 수단으로 감각에 나타나서 이미 우리가 느꼈던 정서 자체를 향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좋아함과 싫어함의 주체가 된 또 다른 종류의 정서가 생겨난다(C 172).

이차적 정서가 일차적 정서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주장과 이 정서가 좋아함과 싫어함의 감정을 낳는다는 주장은 이차적 정서 자체가 좋아함과 싫어함의 정서를 산출하는 능력 기관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감각인 도덕감은 이차적인 자연적 정서와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차적인 자연적 정서로서의 도덕감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특징은 이 정서가 우리의 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샤프츠베리는 우리의 행위가 이성적인 요소가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주의주의자이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이차적인 자연적 정서로서의 도덕감이다.

어떤 동물도 정념 혹은 정서 없이는 적절히 행위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그를 움직이게 하는 사랑, 두려움, 혐오와 같은 정념 혹은 정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C 195).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요소는 이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행위의 원인이 되는 정서는 오직 다른 정서, 즉 그것보다 강한 정서에 의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을 뿐이다(C 195-196). 이성적인 추론이나 판단의 결과는 오직 다른 정서를 통해서만 이차적인 정서인 도덕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C 171).

자연적 정서(natural affection) 자체만큼 우리에게 자연적이면서 우리의 구성 원리의 첫 원칙인 *옳고 그름의 감각*을 직접적 혹은 즉각적으로 파괴하거나 혹은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사변적인 의견이나 신앙 혹은 신념은 없다. 원초적이고 순수하게 본성적인 것은 그것에 반대되는 습관과 관습(이차 본성)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 영혼 안에 혹은 영혼의 정서적인 부분 안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정서 중에서 가장 일찍 발생하는 이 정서는 *반대되는 정서를 제외하고는* ... 그것을 파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C 179).

이차적 정서인 도덕감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작용의 즉각성이다. 우리는 이 같은 특징을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 사이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도덕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에 도덕 판단을 미적 판단과의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그 판단의 즉각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었다.¹⁹⁾ 이차적 정서인 도덕감은 어떠한 이성적 추론이나 매개 없이 즉각적으로 결과에 해당되는 정서를 산출해낸다.

눈을 열어 모양을 보자마자, 귀로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아름다운 결과들, 은총 그리고 조화가 알려지고 인정되어지고, 행위들을 보자마자, 인간의 정서와 정념들을 식별하자마자 (그것들의 대부분은 느껴지자마자 식별된다) 내면의 눈은 기형적이고 역겹고 혐오스럽고, 비열한 것과는 구별된, 공평하고 균형 잡힌 것, 사랑스럽고 감탄할 만한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판별해 낸다(C 326).

19) Kivy(2003), 16.

이러한 도덕감의 정서적인 특징들은 샤프츠베리가 도덕의 기초를 이성적인 요소가 아닌 감성적인 요소에 위치시킴으로써 이성을 통해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객관적 규칙을 찾으려는 당대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덕감과 이성

하지만, 이성을 강조하였던 스토아학과와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자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샤프츠베리가 완전히 이성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 감성적인 요소만으로 도덕의 기초를 설명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샤프츠베리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고 덕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반성(reflection)능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C 172). 아무리 도덕감이 이차적 정서와 다를 바 없다고 하더라도 샤프츠베리에게 좋아함과 싫어함의 이차적 정서는 반성적 정서이므로 반성 능력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정서이다.

반성에 의해서 마음 안에 나타난 연민, 친절, 감사와 그 반대의 정서들도 정서의 대상들이 된다. 그래서 이 *반성된 감각(reflected sense)*을 통해서 감각에 나타나서 이미 우리가 느꼈던 정서 자체를 향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좋아함과 싫어함의 주체가 된 또 다른 종류의 정서가 생겨난다(C 172).

신에 대한 어떤 고정된 개념을 갖기 전에 *반성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도덕적 행위들에 대한 좋아함과 싫어함의 감정을 갖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옳고 그름의 감각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C 182).

도덕감이 반성 능력-반성적 감각(reflected sense) 혹은 일차적 정서에 대한 반성적 정서-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이성적인 능력을 사용함으로

써만 이차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음을 함축한다. 샤프츠베리는 옳고 그름의 지식을 파악할 수 있고 이차적 정서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이성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차적인 정서를 산출하는 도덕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감을 제대로 사용하여 덕스러운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와 덕이 얼마나 옳고 그름의 지식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정서들의 올바른 적용을 보증하기 위해 충분한 이성의 사용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C 175).

설명한 것처럼 옳고 그름의 도덕적 대상을 향한 올바른 경향성과 균형 잡힌 정서가 내재된 덕의 본성을 소유한 이성적 존재로부터 다음의 3가지를 제외하고는 덕의 원칙을 제외시키거나 그 원칙을 무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C 177).

일차적인 정서는 이성이 없는 존재들도 소유하고 있는 정서이므로 이성적·반성적인 판단은 일차적인 정서와 이차적인 정서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외적인 대상을 보고 관대함이나 친절함 그리고 연민과 같은 정서가 생겨난 후 다시 그 정서를 대상으로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이차적인 정서를 가지려고 할 때,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일차적인 정서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이성의 판단작용이 그 사이에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후에 이차적 정서인 도덕감은 일차적 정서가 옳은 것이라면 좋아함의 감정, 그른 것이라면 싫어함의 감정을 산출하는 것이다.

20) “건전하고 잘 확립된 이성만이 올바른 정서, 한결같고 확고한 의지 그리고 결의를 구성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이성이 부족하여 겨우 이성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에 의해서도 덕은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공유된다(C 176).”

이성이 부족해서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절, 용기, 감사 연민에 대한 사랑과 같이 많은 좋은 성질들과 정서들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 만약 네가 이 존재에게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면 그 즉시 그는 감사와 친절 그리고 연민에 대해 승인할 것이다. ... 덕스러울 수 있게 되고 옳고 그름의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C 182-183).

어떤 존재가 공적인 이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때, 그리고 무엇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인지, 칭찬할 만하고 비난할 만한 것인지 혹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학문에 도달할 수 있고 심사숙고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그를 덕스럽다(virtuous)고 칭할 수 있다. ... 만약 이 존재가 관대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동점심이 많다하더라도, 가치와 정직이 무엇인지 주목하지도 못하고 그 가치와 정직의 개념을 그의 정서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자신이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에 대해 반성(reflection)할 수 없다면 그는 덕스러운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다(C 173).

이차적인 정서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차적인 정서가 공공 선(혹은 사회적·공적인 이익)을 향한 정서라는 샤프츠베리의 주장과 연관이 있다(C 184-185). 즉 도덕감이 일차적인 정서에 대해 공공 선 혹은 이익의 관점에서 반성해 보고 긍정의 정서 혹은 부정적 정서를 산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회적 이익인지 무엇이지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도덕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개념작용, 판단작용, 반성작용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¹⁾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정서적인 요소만이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신념이나 의견은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샤프츠베리의 주장과 어떻게 양립 가능할 수 있는가? 샤프츠베리는 오직 정서적인 것만이 도덕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도덕감을 “직접적 혹은 즉각적으로 파괴하거나 혹은 차단

21) Rivers(2000), 126.

할 수 있는 어떠한 사변적인 의견이나 신앙 혹은 신념은 없다(C 179)”고 주장하면서도 “신념에 의해 인과적으로 자극된 정서(C 179)”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성적 요소가 정서적 요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자면 도덕감은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 정서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교육과 습관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이성의 도움을 바탕으로 참된 기준을 가진 채 작동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3. 허치슨의 도덕 철학

1) 도덕의 출발점으로서 미학

샤프츠베리의 이론을 받아들여 도덕감 이론을 발전시킨 허치슨은 많은 점에 있어서 샤프츠베리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이론과 샤프츠베리의 이론을 접목시킨 허치슨의 이론은 샤프츠베리의 이론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허치슨은 샤프츠베리가 자신의 철학적 출발점으로 받아들였던 형이상학적인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찰과 반성이라는 경험적 방법론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정립한다는 사실에 놓여있다.²²⁾ 허치슨이 『미와 덕에 관한 우리 관념의 기원 탐구』에서 경험과 관찰에 명백한 내적 감각인 미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도덕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물론 샤프츠베리 역시 미 개념과 선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두 개념을 연결시키기는 하지만 두 개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모든 사물이 부분과 전체로서 우주적 체계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형이상학적인 가정을 받아들여야만 했다면, 허치슨은 이러한 가정 없이 관찰과 반성이라는 경험론적

22) Carey(2006), 159.

방법론을 통해 미 개념과 선 개념을 발견한다(I 63)²³⁾는 점에서 샤프츠베리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허치슨은 로크의 철학적 방법론과 그의 인식론을 기초로 자신의 논의를 시작한다. 허치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대상인 모든 관념들은 감각작용과 반성에 의해서 우리마음에 생겨나며, 외부대상으로부터 관념이 발생하게 되는 감각작용(혹은 지각)에는 각각에 대응하는 외부 감관이 존재하며(I 19), 이 각각의 감관을 통해 지각된 관념들은 단순 관념들이며, 마음의 능동적인 작용을 통해서 비교, 추상 결합을 통해 실체관념과 같은 복합관념을 만들어내고(I 20), 우리 마음 안에 관념을 산출하는 대상이 가진 힘에는 일차성질과 이차성질이 있다(I 21-22)고 본다는 점에서 로크의 인식론적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허치슨이 로크 철학의 전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로크는 정념이나 쾌의 관념은 반성작용에 의해서 산출된다고 주장하나, 허치슨은 다양한 외부 감관(외감)이 그에 대응하는 단순관념을 산출하듯이 우리 안에 다양한 종류의 쾌의 관념을 산출하는 내감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로크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I 23). 허치슨에게 내감을 통해 쾌의 관념을 지각하는 것은 반성작용이 아니다(I 23).

허치슨은 덕 관념과 도덕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미적 쾌의 관념 혹은 미 관념²⁴⁾을 지각하게 하는 내감으로서 미감에 대해 논의한다. 도덕이론은 미학이론과의 유비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허치슨의 입장이므로 도덕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미 관념을 산출하는 미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미감이 가지고

23) 허치슨의 저서인 『미와 덕에 관한 우리 관념의 기원 탐구(An Inquiry into the Original of Our Ideas of Beauty and Virtue)』는 I 로 표기해서 본문에 직접 인용한다. 약어 표기와 출처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참조하라.

24) 엄밀히 말하자면 미적 쾌의 관념이 우리 안에 미의 관념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지만(I 25) 미의 관념과 미적 쾌의 관념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Kivy(1995), 350.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미감이 어떤 선행하는 지식이나 이성의 작용 없이 즉각적으로 미 관념을 산출한다는 점에 있다(I 25). 따라서 아름답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관념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미감과 미에 대한 욕구(소유욕)는 다르다. 우리가 전혀 소유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광경을 보았을 때도 우리의 미감은 우리의 욕구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미의 관념을 산출시킨다. 단순 관념을 산출하는 외감이 수동적인 것처럼 미의 관념을 산출하는 미감 역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수동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감은 내감이므로 외부대상의 성질을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미감은 외부대상안의 특정한 성질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들을 받아들여 마음속에 생긴 관념을 대상으로 삼아 미 관념을 일으킨다. 그렇다고 해서 허치슨이 미감에 의해서 생겨난 미 관념을 로크가 주장한 것과 같이 다양한 단순관념들이 합성된 양태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로크는 미 관념을 마음의 능동적인 구성 작용의 결과인 복합관념으로서의 혼합양태로 파악하지만, 허치슨은 미 관념을 이차성질과 같은 단순관념으로 간주한다(I 27).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관념들을 대상으로 미감을 통해 미 관념을 산출하는가? 대상이 가진 개별적 성질에 해당하는 구조(form) 혹은 모양(figure)에 관한 관념이 우리 안에 미 관념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Uniformity amidst Variety)”을 가진 모양에 관한 관념이 미감을 통해 미 관념을 일으키는 대상이라고 허치슨은 주장한다(I 28). 그는 이러한 주장을 독단적 가정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살펴본 아이들의 판단의 예를 바탕으로 근거 짓는다(I 30).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미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나 반성 없는 사람들도 미적 쾌의 관념을 산출한다는 사실은 미감이 그 작용을 위해 어떠한 이성적 추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I 35). 구조가 어떠한지 전혀 모르

고 있더라도 외감을 통해 구조(form) 혹은 모양(figure)이라는 실제 대상의 특정한 성질에 관한 관념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그 관념으로부터 미감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수동적으로 미 관념이 산출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 관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주관적 관념이라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허치슨은 미감을 통해서 산출된 미 관념을 ‘본래적인(original) 혹은 절대적(absolute)인 미’와 ‘상대적인(relative) 혹은 비교 가능한(comparative) 미’로 구분하고, 자연적 사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외부적인 대상과의 비교 없이 대상 안에 존재하는 성질로부터 기인한 미를 본래적·절대적인 미로, 자연에 대한 모방이나 시, 그림처럼 다른 것과의 모방이나 유사성을 가진 대상으로부터 지각되는 미를 상대적·비교 가능한 미로 간주한다(I 27). 본래적인 미에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미의 일반적 기초로 작용하지만 상대적인 미에서는 “본래적인 것과 모방된 것 사이의 유사성(conformity)”이 미 관념을 산출하는 미의 기초로 상정된다(I 42). 이 때 상대적인 미는 관찰을 통한 비교, 제작자의 의도에 대한 고려, 설계에 대한 파악들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미와는 달리 이성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I 45).

다섯째, 미감은 미 관념만을 지각할 뿐 불쾌(고통)의 관념, 즉 반대관념이라고 생각되는 추함의 관념은 미감을 통해서 지각할 수 없다(I 61-62). 추함 혹은 혐오의 관념은 관념들의 연합에 의해서 발생된다(I 63). 이때 관념들의 연합은 추함 혹은 혐오의 관념뿐만 아니라, 복잡성을 띠고 있어 자연적으로는 미적 쾌의 관념을 산출할 수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쾌의 관념을 산출하게 만들 수 있다(I 63). 또한 이 관념들의 연합은 사람들 사이의 미적 판단의 불일치의 원인이기도 하다(I 67). 관습, 습관, 교육 그리고 우리의 이익에 대한 관점이 관념연합 작용에 영향을 미치면 미감은 원래 자연에서 주어진 바에 따라 미적 쾌의 관념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관념을 바탕으로 의견과 선입견의 영향 아래서

서로 일치되지 않은 미 관념을 지각하게 된다(I 72-73).

2) 도덕감의 특징

미감에 대한 이러한 논의 후에 허치슨은 덕 혹은 도덕적 선에 관한 관념과 그것을 다루는 도덕감에 대한 논의로 나아간다. 허치슨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덕이론을 전개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허치슨은 모든 우리의 행위는 이기심에 의해서 동기 부여된다는 흄스식의 주장에 반대하여 모든 인간은 반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연적 선과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선이 있음을 의식한다고 주장한다(I 90).²⁵⁾ 이 때 도덕적 선은 우리의 이익과는 무관함에도 “우리 안에 행위자를 향한 사랑과 [도덕 행위에 대한] 승인(approbation)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파악된 성질들의 관념을 지칭(I 85)”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이익과 연관된 자연적 선과는 다른 것이다. 도덕감이란 우리 자신에게 행해진 행위나 타인을 향한 행위 안에 내재된 이러한 성질들을 지각함으로써 도덕적 선 혹은 승인의 관념을 산출하는 내감으로, 허치슨은 도덕적 선 혹은 승인 관념의 산출은 우리의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관념들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능력인 도덕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I 90). 따라서 수동적 능력으로서 도덕감의 작용은 선천적인 것으로 자기 이익에 대한 관점, 습관, 교육, 이성적 추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위가 가지고 있는 덕스러운 성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허치슨은 덕스럽거나 부덕한 행위들은 이성적 행위자를 향한 정서

25) 허치슨은 인간에게는 자기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욕구 이외에, 이러한 욕구와 무관한 고차원적인 욕구가 인간 본성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허치슨에 따르면, 우리의 본성 안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향하는 욕구가 존재하는 데 이 욕구(감정)가 바로 자애(benevolence)이다. (I 90)

(affection)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²⁶⁾ 즉 “우리가 덕(virtue) 혹은 부덕(vice)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정서 혹은 그 정서로부터 나타난 행위들(I 101)”이라고 주장하면서 덕의 원천을 이성적 행위자가 다른 이성적 행위자에게 가지는 특정한 정서에 귀속시킨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서가 덕스러움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내성에 의해서 자기에 대한 정서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정서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I 90; 114), 이중 자기애의 정서가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촉진시키는 정서, 즉 타인을 향한 사심없는(disinterested) 정서인 사랑과 미움만이 덕스러움의 원천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허치슨은 주장한다. 허치슨에 따르면, 실제로 도덕과 연관된 정서란 사랑과 미움뿐이며 나머지 정서들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원초적인 정서의 변용들(modifications)에 불과하다(I 102). 허치슨은 그 중에서도 타인의 행복을 위한 사심없는 욕구(desire)인 ‘자애(benevolence)’를 덕스러운 행위의 원천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자애로운 정서로부터 흘러나온 행위를 보게 되면 도덕감은 그 행위 속에서 자애로부터 나온 성질을 지각하고 그 행위가 승인할 만한 행위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덕의 원천은 우리에게 주어진 원초적인 본능 가운데 자기애와 이기심이 아닌 타인을 향해 선을 행하려는 이타적인 본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I 133).

이제 허치슨이 설명하고 있는 도덕감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도덕감은 도덕적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능력으로, 미감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성의 도움이 나 의지 없이도 즉각적이고 수동적으로 작동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덕감이 파악하는 행위 안에 있는 성질인 자애는 일종의 욕구로 로크가 단순관념으로 간주한 것이다(I 224). 따라서 도덕감은 외감의 작용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능동적인 작용 없이 즉각적이고 수동적으로 도덕 지각

26) 이 이성적 행위자는 신과 인간 모두를 지칭한다(I 101).

을 내린다. 이 점에서 허치슨의 도덕감은 샤프츠베리의 도덕감과 차이를 드러낸다. 샤프츠베리가 일종의 반성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감을 설명한 반면 허치슨은 우리의 행위가 자애로부터 온 행위인지를 도덕감이 승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반성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I 94).²⁷⁾

둘째, 도덕감은 행위 속에 어떠한 성질이 자애를 담고 있는 성질인지를 즉각적으로 지각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쾌의 감정도 직접적으로 산출한다. 특정한 행위 안에 덕스럽거나 부덕한 성질이 있는지를 지각하여 그 행위에 대한 승인 불승인의 판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도덕감을 통한 지각작용의 역할이다. 따라서 도덕감이 덕을 지각하는 것은 곧 덕에 대해 승인의 판단을 내리는 것과 동일시된다. 또한 도덕감은 승인의 판단과 더불어 그 행위에 대한 쾌의 감정도 산출한다. 하지만 쾌의 감정자체가 승인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허치슨은 쾌의 감정을 승인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뒤따라오는 것으로 설명한다.²⁸⁾ 이러한 설명은 그가 유비관계로 설정해 놓은 내감으로서의 미감과 도덕감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미감에서 미적 쾌의 관념은 미 관념과 동일시되나 도덕감에서 도덕적 쾌의 관념은 승인의 관념과 동일한 것이 아닌 승인이 먼저 내려지고 그 이후에 동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²⁹⁾

27) Harris(2017), 331.

28) 초판과 재판에서는 도덕감이 승인의 판단을 내리지만 쾌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의 예를 들고 있다. 즉, 도덕감에 의해서 승인의 판단과 함께 정당한 슬픔, 분노, 연민의 감정을 일어난 경우에는 쾌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3판과 4판에서는 해당부분이 삭제된 것을 보아 그러한 경우라도 일종의 쾌가 산출된다고 간주한 것처럼 보인다(I 110-111).

29) 윌리엄 프랑케나(William Frankena)는 허치슨의 도덕감을 행위에 대한 쾌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승인으로 해석한다. 이는 허치슨의 도덕감을 비인지적 이론인 초기형태의 정서주의(emotivism)로 간주하게 만든다. Frankena(1955), 372. 하지만 노튼(David F. Norton)은 프랑케나의 해석이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비판하고 프랑케나와 달리 도덕감은 인지적인 능력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Norton(1974), 3; 8-9.

셋째, 도덕감은 특정한 행위에서 덕을 지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두 가지 이유, 즉 ‘그 행위가 실행되기 위해 감정적으로 동기부여 됐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와 연관되어 있다. 도덕감이 없다면 우리의 행위는 자기애와 주관적인 도덕 판단에 기초한 원칙에 의해서만 동기부여 되었을 것이다(I 166). 하지만 도덕적 승인의 판단과 자애에 대한 쾌의 감정을 모두 산출하는 도덕감은 도덕적 행위를 실행하게 하는데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도 제공함으로써 우리 행위를 인도하는 행위인도기능을 가지고 있다(I 99).

넷째, 도덕감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면 도덕 판단에 대한 불일치 혹은 잘못된 도덕 판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도덕감은 우리 본성의 구조 안에 자연이 제공한 본유적인 능력이므로 결코 작동이 중지될 수 없으나 자기애의 이기적인 동기가 강해져서 그 작동이 방해받을 수는 있다(I 136). 즉, 자기애를 바탕으로 하는 격렬한 정념(violent passions)이 도덕감보다 더 큰 동기부여를 행위에 제기하는 경우 잘못된 도덕 판단이 발생할 수 있다(I 136-137). 이것과 더불어 허치슨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도덕감이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서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우선 “행복 혹은 자연적 선의 개념이 다르거나 그것을 촉진시킬 효과적인 수단에 대한 의견(I 137)”이 다른 경우, 타인에 대한 행복개념과 그 수단에 대한 의견도 변하게 되어 타인의 행복을 향하는 욕구인 자애의 내용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도덕감은 여전히 도덕적 행위 안에서 자애의 성질을 즉각적이고 수동적으로 파악하지만, 행복에 대한 사회적 선호가 다르게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도덕감의 작동은 정

30) 허치슨은 자유와 용기를 자연적인 선으로 간주하지만, 전쟁을 악으로 간주하는 나라와 스파르타처럼 부와 소유를 경멸하고 도둑질을 법에 의해서 면책해주는 나라에서는 자연적 선에 관한 다른 의견이 존재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I

상적이어서 자애의 성질에 반응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쾌의 관념을 산출하게 한다. 도덕감이 잘못되거나 일치되지 않은 도덕 판단을 내리는 두 번째 경우는 종파, 파벌, 당파와 같은 제한된 그룹의 어리석은 의견 혹은 신조에 따라 자애가 적용되는 범위를 매우 좁은 체계로 제한했을 때 발생한다(I 141). 자기 자신의 종파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애와 도덕감이 제대로 작동하지만 자신의 종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애가 적용되지 않아 도덕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적들에 대한 적대감, 자신들이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이러한 예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I 141). 세 번째는 신법과 신의지에 대한 거짓된 의견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거짓 의견은 도덕감으로 하여금 “어리석음, 미신, 살인, 왕국의 황폐화”에 해당하는 것을 승인하게 만든다(I 144). 위의 언급한 모든 경우를 허치슨은 『정념과 정서의 본성과 행위에 관한 시론』에서 ‘관념들의 연합의 문제’로 환원하여 설명한다(E 10).³¹⁾ 미감에서 관념들의 잘못된 연합이 미적 판단의 불일치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자애의 감정에 대응하는 관념들이 자연적인 방식에 따라 실제에 기초해 연합하지 않고 교육과 습관, 의견을 바탕으로 상상에 의해서 연합된 경우 이기적인 정념이 강력해져 도덕감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승인하게 만들기도 하고(E 95-96; 167), 상상에 의한 관념의 연합이 행복에 관한 다른 관념을 자애와 연결시켜 도덕감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낳도록 하는 것이다(E 88).

137-138).

- 31) 허치슨의 저서인 『정념과 정서의 본성과 행위에 관한 시론(An Essay on the Nature and Conduct of the Passions and Affections, with Illustrations upon the Moral Sense)은 E로 표기해서 본문에 직접 인용한다. 약어 표기와 출처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참조하라. Gill(1995), 292. Cf. I 73.

3) 도덕감과 이성

그렇다면 허치슨의 이론에서 도덕감은 이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허치슨의 도덕감은 샤프츠베리의 도덕감과 달리 하나의 독립적인 내적인 기관으로 작용한다. 미감과 도덕감은 다섯 가지 외감과 마찬가지로 관찰과 경험의 방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독립된 내감이다. 따라서 도덕감 자체는 이성적인 요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도덕감의 작용은 항상 주어진 행위에 대한 수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다. 17세기~18세기에는 “감성적 대응도 특별한 도덕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³²⁾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도덕감이 이성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샤프츠베리의 도덕감과 달리 허치슨의 도덕감은 순전히 감각적인 것으로 이성은 도덕감에 전적으로 외재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감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설명하는 허치슨의 이론에 이성은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인가? 만약 필요하다면 허치슨의 도덕감 이론에서 이성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도덕감 작용 자체에는 이성적 요소가 없음에도 도덕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성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이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도덕감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다. 하나씩 살펴해보도록 하자. 우선 이성은 도덕감을 통한 도덕적 판단의 불일치 및 잘못된 도덕 판단을 수정하여 불일치를 제거하고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잘못된 의견, 관습, 교육, 사회적 선호 때문에 행복에 관한 다른 관념이 생겨나 도덕감이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허치슨은 이러한 관념이 생겨나는 것이 인간이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2) Voitle(1955), 25.

만약 나무나 돌 혹은 금속이 신이어서 통치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라고 가정한다면 그것들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호적인 일일 것이다. 혹은 참된 신이 우상 앞에서 경배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가정한다면 ... 우상 숭배는 덕스러운 일일 것이다. ... 우리의 덕에 대한 감각[도덕감]은 일반적으로 정확히 우리의 의견을 따라 우리[의 행위]를 이끄는 데 충분하다. 그러므로 세상에 만연한 터무니없는 [행위의] 실행은 인간이 행위에 관해 도덕감을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은 논증이다(I 140).

이성의 사용이 없이는 우리는 잘못된 의견, 관습, 교육에 영향을 받은 경우 왜곡된 자아의 관념과 편향된 공공선의 관점을 가지게 되어 도덕감이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성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영향에서 벗어나 일치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허치슨은 이러한 왜곡되고 편향된 관념이 형성된 원인을 관념의 연합의 문제로 해석하는데 이성은 이러한 관념의 연합을 반성과 추상을 통해 검사함으로써 무엇이 잘못된 관념의 연합인지를 발견해 낸다(I 145). 하지만 잘못된 관념의 연합을 발견하고 자연적이고 정당한 관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해서 단번에 이 관념의 연합의 영향에서 벗어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념들의 연합이 주는 공통된 효과는 이 연합이 [욕구의] 대상안의 실제 선보다 과도할 정도로 정념을 일으키고 이 정념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어떤 비밀스런 의견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의견들을 논박하는 것만으로는 이 연합을 부술 수는 없다. 우리의 지성이 이 [욕구의] 대상은 선하지 않고 욕구의 강도가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조차도 이 욕구와 정념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 *갑작스러운 이성의 확신도 이러한 욕구 혹은 혐오를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다*(E 85-86).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관념의 연합을 부수어서 도덕감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칙적으로 *반복적인 반성*을 통해 일반적인 욕구들을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그것들을 습관화함으로써 개별적인 정념에 대한 자제력을 얻을 수 있다(E 28).

모든 우리의 욕구를 정당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전제된 일반적 관찰이 있다. ... 이것에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끊임없는 주목*, 우리 자신에 대한 *습관적 훈련* 그리고 주목하려는 모든 환경은 차별하게 조사하기 전에 모든 행위를 멈추려고 하는 *고정된 결의*에 놓여있다. ... 그러나 이것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 *반복적인 사색(meditation)*과 *반성을 통해* 가능한 한 개별적인 욕구보다 사적이든지 공적이든지 상관없이 차별한 욕구를 강화시키는 것과 개별적인 욕구에 비해서 차별하고 보편적인 자애를 우세하게 만드는 것이다(E 149-150).

허치슨은 반복된 반성작용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관념의 연합을 부수고 도덕감의 대상이 되는 자애가 올바른 관념과 연관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허치슨의 이론에서 이성인 도덕감이 제대로 작동되어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덕감이 작용되기 이전에 도덕감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이성인 도덕감이 도덕적 판단을 통해 특정한 환경에서 도덕적 성질을 가장 많이 가진 행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그에게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은 그를 데려가 씻기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의 도덕감은 이 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자애라는 도덕적 성질을 발견하고 그 행위에 대해 승인의 판단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이 세 행위가 모두 동일한 정도의 도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래서 위의 세 가지 행위 중에 하나를 승인해야 한다면 도덕감 이외에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도덕감만으로는 세 행위 모두 옳은 행위라고 승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엔 이처럼 특정한 상황 속 도덕 행위들의 도덕적 성질을 비교하고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의 개연성을 계산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I 126).

제안된 다양한 행위들 가운데 행해지는 우리의 선택을 규제하기 위해, 혹은 그 행위들 가운데 어떤 행위가 가장 큰 도덕적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행위들의 도덕적 성질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는 덕에 관한 우리의 도덕감을 통해 그 판단을 내리도록 인도된다. 행위로부터 *예상된* 행복이 동일한 경우 덕은 행복이 확장될 사람들의 수에 비례하며 동일한 수일 경우 덕은 행복의 양과 비례한다. 혹은 덕은 [행복을] 즐기는 사람의 수와 선의 양에 복합적으로 비례한다. ... 따라서 최선의 행위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³³⁾을 야기하는 행위이다(I 125).

이성은 특정한 환경에서 도덕감에 의해서 승인된 여러 가능한 도덕적 행위들을 비교하고 다수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행위들의 예상된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여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데 관여한다. 이성적 고려 없이는 이러한 비교 과정을 통해 최적의 행위를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허치슨에게 이성은 행위에 대한 도덕감의 승인 판단 이후 그 승인에 바탕을 둔 행위들 가운데 어떠한 행위가 최선의 선택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3)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표현은 벤담에 의해서 차용된 허치슨의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무엘 콕체이(Samuel Coccej)의 논문 「De Principio Juris Naturalis Unico, Vero, et Aequato」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비평을 통해서였다.(I x).

이처럼 허치슨의 도덕감은 샤프츠베리와 달리 이성의 작용이 포함되지 않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내감으로 작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감이 파악하는 자애의 내용이 올바르게 형성됐는지, 특정한 상황 속 여러 자애의 행위 가운데 어떤 행위가 최선의 행위인지를 결정하게 하는데 있어 이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허치슨의 도덕이론 안에서 이성과 도덕감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법사상에 기초해서 이성을 중심으로 행위 규범 중심의 도덕이론을 세우려고 했던 근대에서 당시의 철학적 흐름과 달리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도덕감 중심의 덕 윤리학을 세우려고 했던 샤프츠베리와 허치슨의 도덕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이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경향성을 도덕의 기초로 상정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덕스러운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옳고 그름의 행위 기준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성은 행위 주체로서 한 인간이 어떠한 내적인 성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성품에서 기인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적합한 능력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 안에 존재하는 덕스러움을 인지하게 하고 느끼게 하여 그 덕스러움에 감화되게 만드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성의 몫이다. 샤프츠베리와 허치슨은 이러한 덕스러움을 판단하는 감성적인 요소를 도덕감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샤프츠베리와 허치슨이 덕 윤리학을 계승하기 위해 감성 중심의 도덕 이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해서 당시 시대적 사조·객관적인 도덕적 실재를 확보하고 보편적인 도덕 행위 규칙을 세우기를 갈망하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캠브리지 플라톤주

의자들과 스토아학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샤프츠베리는 도덕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정서와 동일시하면서도 그 안에 이성에 의한 반성작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덕스러운 행위를 파악함에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을 갖고자 했다. 반면 허치슨은 우리 안에 다섯 가지 외부 감각기관에 대비되는 덕스러운 품성과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독립된 감각기관인 도덕감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샤프츠베리에게 있었던 도덕감과 이성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애와 연결되는 덕스러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불일치를 해소하고 싶었던 허치슨은 도덕감이 할 수 없는 역할, 즉 시대 초월적인 의미에서의 보편적인 덕스러움이란 무엇인지를 이성의 도움을 통해 찾고자 했다. 이처럼 샤프츠베리와 허치슨은 그들의 도덕감 이론을 통해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규범윤리학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덕 중심의 윤리학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이성 중심의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이들의 사상은 영국 경험론 전통을 통해 계속 이어지다가 흄에 와서야 이성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순전히 감정만을 가지고 덕스러움을 판단할 수 있는 이론으로 변화되었고 비로소 이성을 중시하던 근대라는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³⁴⁾

34) 양선이(2015), 27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2012), 『에우데모스 윤리학』 송유례 역, 한길사
- 아리스토텔레스 (2013), 『니코마코스 윤리학』 천병희 역, 숲
- 양선이, (2015), 「흠의 철학에서 행복의 의미와 치유로서의 철학」, 『철학논집』 제43집, 9-39
- Carey, Daniel. (2006), *Locke, Shaftesbury, and Hutcheson: Contesting Diversity in the Enlightenment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9
- Gill, Michael B. (1995), “Nature and Association in the Moral Theory of Francis Hutcheson”,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12 (3): 281-301.
- Grotius, Hugo (2012), *On the Law of War and Peace* Student Edition. S. Neff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kena, William. (1955), “Hutcheson's Moral Sense Theor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16(3): 356-375*
- Harris, James. (2017), “Shaftesbury, Hutcheson and the Moral Sense” In S. Golob & J. Timmermann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25-337.
- Heydt, Colin. (2018), *Moral Philosophy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3.
- Hutcheson, Francis. (1725), *An Inquiry Concerning the Original of Our Ideas of Virtue or Moral Good*. [I] (2004), Indianapolis: Liberty Fund.
- _____ (1769), *An Essay on the Nature and Conduct of the Passions and Affections, with Illustrations upon the Moral Sense*, 3rd edition. [E] Glasgow: Robert & Andrew Foulis.

- Kivy, Peter. (1995), "The "Sense" of Beauty and the Sense of "Art": Hutcheson's Place in the History and Practice of Aesthetics",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3 (4) :349-357.
- _____(2003), *The Seventh Sense: Francis Hutcheson and Eighteenth-Century Aesthetics*, Oxford: Clarendon Press.
- Norton, David Fate. (1974), "Hutcheson's moral sense theory reconsidered", *Dialogue* 13 (1):3-23
- Rivers, Isabel. (2000), *Reason, Grace, and Sentiment: A Study of the Language of Religion and Ethics in England, 1660-1780, Vol. II: Shaftesbury to Hum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ftesbury, (1714), *Characteristic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I-III. [C] (ed) Lawrence E. Klein, 20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neewind, J. B. (2009), *Essay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uveson, Ernest. (1948), "The Origins of the 'Moral Sense,'"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XI 241-259.
- Venturi, Franco. (1971), *Utopia and Reform in the Enlighte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itle Robert B. (1995), "Shaftesbury's Moral Sense," *Studies in Philology* 52(1): 17-38

**The role of reason in the early moral sense theories:
A comparison between Shaftesbury and Francis Hutcheson**

Kim, Jong Won (Sogang Univ.)

The aim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ly, it explains moral sense theory of Shaftesbury and Francis Hutcheson more closely, which is a little unfamiliar to us. Secondly it shows what the role of reason in their moral sense theories are. In the modern period, act-centered normative ethics based on reason was the mainstream of the ethics. Probably, Shaftesbury and Hutcheson were the first philosophers who try to establish virtue-centered ethics based on an affective factor in the modern period. However, they could not complete their theory without help of reason. It is maybe because they are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modern period.

Key words: Shaftesbury, Francis Hutcheson, moral sense, reason, virtue

김종원 E-mail : kimjw74@hotmail.com

투 고 일	2020년 10월 15일
심 사 일	2020년 10월 24일
게재확정	2020년 11월 16일